조선시대 임실모습 한눈에

1970년대 변천사 파악 가능한 '운수지' 확보

1730년대 임실군의 변천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순창군 금과면에 거주하는 설씨대종중 설명환(薛明煥) 회장으로부터 1730년 작성된 '운수지(雲水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환 회장은 "선조인 설유태(薛儒泰, 1700~?)가 1730년 경 운수지 집필에 참여하며 1부를 소장했고 현재까지 가문에서 보관한 것"이라고 소장 경위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운수지'는 필사본으로 총 156페이지에 가로 세로 29㎝ x 23㎝ 정도이다.

간행에 참여한 이들을 알 수 없었던 기존 읍지와 달리 참가한 이들이 기록돼 있다.

그동안 임실의 사정을 담고 있는 읍지로서 알려진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남읍지', 1904년 발행된 '운수지' 등이다.

1675년 전후 신계징 현감이 한필성 등과 함께 '운수지'를 간행했다는 서문만 있을 뿐 발견되지 않아 소문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필사본 '운수지'는 1759년 어람용으로 작성된 '여지도서'의 '임실현'조와 그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1796년 간행된 '호남읍지'의 형식과 비슷하면서도 포함되지 않은 1730년대 임실군의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운수관'에 대해 기존 읍지는 '임실군 관아건물로 객사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1904년 '운수지'는 '봉황산 아래에 서북쪽을 뒤로하고 동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산을 등지고 시냇물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필사본 '운수지'는 1730년 당시 임실현 객사 운수관의 규모와 구성, 운수정(雲水井)의 형국 등을 모형으로 제작할 정도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임실현청 관아에 대한 구성과 규모의 내용 또한 매우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김철배 임실군 학예사는 "새롭게 발견된 '운수지'는 조선시대 임실현청의 변천모습을 보여줄 아주 중요한 자료"라며 "현재 2018년 간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실군지' 내용을 한층 풍성하고 상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 제보 및 문의는 문화관광치즈과(640-2315)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2017년 순창군정 빛낸 주역 총집합

군정베스트 발표대회 열어

'전통장문화학교' 최고상

올 한해 순창군정을 빛낸 별들이 한자리 모여 기량을 뽐냈다.

군은 지난 26일 2017년 군정베스트 선정을 위한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순창전통장문화학교'를 올해의 군정 베스트로 최종 선정했다.

'군정베스트'는 한해 동안 적극적 사고와 창의성으로 군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조직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우수사례를 공개 모집한 결과 25개 팀이 응모해 내부평가단의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의 우수사례가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자웅을 겨뤘다. 선발 분야는 행정관리, 지방재정, 지역경제 총 5가지 분야였다.

이날 최종 발표 심사에 오른 우수사례는 ▲메주만들기 체험이 순창 전통장문화학교로 ▲2030 순창 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구축, ▲강천산 환상캠핑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금과방축 입체교차로 변경 설치예산 확보 ▲ 군민이 행복한 순창마을만들기사업 이다.

발표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 언론인,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별도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서면평가 60%와 발표평가 40%를 반영했으며 베스트는 '메주만들기 체험이 순창 전통장문화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전통장문화학교 는 도시 학생들이 순창을 방문해 기능인들과 함께 메주를 만들면서 전통발효문화는 물론 농장체험 농촌체험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 아 리*

임실군 소규모 숙원사업 조기 착수

합동설계반 편성 · 운영 돌입

임실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마을안길과 영농 관련 사업에 필수적인 농로와 배수로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376건을 편성, 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이같은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읍·면 토목직 공무원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합동설계반은 소규모 숙원사업 중 296건(47억 5천만원)에 대해 자체설계를 추진,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용역설계 대상사업인 80건에 한해 19억5천만원을 조기에 추진, 실시설계 용역을 사전에 발주하는 등 조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설계를 조기에 완료해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영농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치안책임자로서 중책 사명감"

김태형 순창경찰서장 취임

김태형 순창경찰서장(사진)은 27일 오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태형 서장은 "순창경찰 가족이 됨과 동시에 치안책임자로서 중책을 맡게 된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재임기간 동안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로 지휘관으로써 솔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과 원칙이 존중받는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모두가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이자 프로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불안감이 큰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중점 추진과 함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한편 김태형 서장은 매사에 적극적이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의 자녀를 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셋째 낳으면 1천만원 드려요"

남원시 출산지원금 파격인상에 경제적 부담 해소

남다른 출산지원 시책으로 2년 연속 국무총리상을 받은 남원시가 2018년생부터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남원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이상아 4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으로 올린다.

덧붙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본인부담금 90% 환급제'도 계속 시행된다.

남원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저소득층만이 아닌 모든 출산가정에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5~25일간 가정에서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1:1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최대 90%까지를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출산붐분위기 조성과 신생아 탄생을 전 시민이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받는 축하전화',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글 게재', '액자 만들어 주기', '민간기업 협약을 통한 출산축하용품과 시 자체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장이 발로 뛰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지원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620-7941)으로 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27일 개관한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 문 활짝, 웃음꽃도 활짝

순창군 4억여원 투입 개관

새해 2일부터 정상 운영

순창군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폈다.

군은 27일 문화의집 2층 회의실에서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숙주 군수, 김종섭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관내 어린이집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순창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장난감을 대출해 주는 시스템으로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비용을 절감해 각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해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4억 300만원을 투입해 175.7㎡ 규모로 문화의 집 1층에 만들어 졌으며 영유아의 성장에 맞춘 다양한 장난감 335종 988여점을 비치했다.

군은 운영 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게시한다.

황숙주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주고,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운암 국사봉 해맞이 축제 취소

임실군 AI 유입 · 확산방지 만전

임실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10회 운암 국사봉 해맞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 예정된 국사봉 해맞이 축제를 비롯해 읍·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맞이 관련 행사도 모두 취소된다.

군에 따르면 AI 발생 후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국 방역수위가 최고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축제는 신속한 종식을 위해 부득이 취소키로 했다.

AI 선제적 예방을 위해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심민 군수를 본부장으로 4개 반을 편성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하는 등 AI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사봉 해맞이 축제'는 매년 1월1일 지역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행사로 첫 일출을 보며 군민의 안녕과 지역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서 AI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전국적인 AI 확산 추세를 고려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